

다매 오로지 전용 수배 직분차원을 고집하는

지리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 지정 한국산 차용제 사용법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자 보호(생산자 스키마 직거래)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고객이 오르면 보충금까지 내주는 빅맨통장
- 고객에게 수혜하고, 고객에게도 보충금까지 주는 빅맨통장

문의처: 080-0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문 / 편집국장: 최희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6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꽃 향기는 역풍을 만나면 사라지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역풍을 이기고 사방에 퍼진다. (법구경)

법회 안내

- 출입사** (02)803-4779
- 초대부인회 매월 1일(음) 입회 매월 3일(음) 회향
 - 다사부인회 매월 8일(음)
 - 안동부인회 매월 15일(음)
 - 지리산부인회 매월 18일(음)
 - 관동부인회 매월 21일(음)
 - 백담기도 매월 22~28일(음)
 - 향약기도 매월 21~31일
- 대전 지장암** (042)221-6208
- 신증기도 매월 13일(음) 입회 매월 31일(음) 회향
 - 문수보살기도 매월 4일(음) 입회
 - 지장암회 매월 19일(음) 입회
 - 관동부인회 매월 21일(음) 입회
 - 장안산부인회 매월 주일 오후 7시 30분
- 정암사** (0398)361-6925
- 일반기도 백성의 법회 매월 1·15 일(음) 오전 10시
 - 관동부인회 매월 21일(음) 입회
 - 향약기도 매월 1·3주 금요일 오후 7시
 - 향약기도 매월 주일 오전 11시 30분
- 동행 심화사** (0394)34-8313
- 일반기도 매월 1일(음)
 - 중고등법회 2·4주 일 오전 11시
 - 김홍 관음사 (0391)43-2385
 - 동행법회 매월 일 오전 10시
 - 강령만수거사 법회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
 - 관음사보살기도 매월 주일 오후 7시
 - 강령보살기도 매월 주일 오후 7시
 - 대학당보살기도 매월 주일 오후 6시
 - 분무리회 매월 토요일 오후 6시
 - 교동사법회 매월 주일 오후 2시
 - 여교사법회 매월 1일
 - 산중기도 매월 1일~31일(음)

불교의식 통일화 본격 착수

조계종, 통일법요집 편찬위 내달 구성...오·비디오도 제작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는 불교의식이 통일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학스님)은 21일 '통일법요집 편찬사업 기획안'을 발표하고 1단계 사업으로 5차에 걸친 편찬준비 세미나에 들어갔다.

포교원이 밝힌 통일법요집 편찬사업기획안에 따르면 99년 최종안 제작을 목표로 1단계 기초조사(95년), 2 단계 편찬사업(96~97년), 4 단계 홍보

예정이다.

포교원장 정학스님은 통일법요집 편찬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불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의례, 법회의식, 생황의례 등이 서로 다르거나 경전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이를 그날 방지하면 향후 한국 불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사부대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불교의식의 정형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계에는 <삼하평등도집>(원문스님지음 80년), <통일법요집>(진홍원편찬 88년)을



◇ 새세대 영문과 교수인 프랭크 테데스코씨 가족(부인 임진숙씨 딸 세연양)이 불자가정 스티커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불자 가정' 주문 쇄도

"우리는 불자 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보급 운동이 사찰단위로 확산되면서 전국 불자들의 동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자 가정' 스티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1만원입니다. 또한 낱말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분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불자가 동참자 천매 이상: △공주 향림사(주지 천운) △문재산 원효암(주지 법열) △일련사(주지 직연) △직지사 운수암(주지 보인) △송원사(주지 본각) △영선암(주지 자평) △보현선원(주지 해공) 천매 이하: △성불사(주지 본원) △보현선원(주지 법일) △여곡포교원(주지 동중) △강로사 포교당(주지 현수)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한국불교법성대학 △포교원 심상선원 △보현선원 법당지원 불자회(회장 권영남) △박종철 △박관용 △서유자 △신현관 △정종수 △조용관 △김용철 △김기택 △이운자 △정병호 △이종화 △고상구 △박현일 △김용진 △서태중 △최정욱 △한상훈 △문연중 △문병욱 △이광순 △손우철 △강규형 △박선희 △박현상 △이석일 △김영만 △권준대 △김계희 (우순)

통일법요집 제작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공동체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정부의 참회 촉구 제 117회 조계종 임시총회에서는 대통령 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중회 결의문을 전의 박수로 새 채택했다. (사진=박재관 기자)

조계종 사면·복권 곧 실시

117회 총회서 만장일치...환경대책위도 구성

일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초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이 곧 단행된다.

조계종 제 117회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22일 총무원이 제출한 33명 사면·복권·경감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로써 이들 33명에 대한 일화 중정스님의 재가가 있게 되면 곧바로 총무원장에 의해 전격적인 사면·복권·경감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사면·복권·경감 대상에서 개혁회의 기간 정계자 34명 개혁이전 정계자 12명 등 총 46명 중 달인, 파멸치법, 소송제기자 등 13명은 제외·보류했다.

△공권력 투입에 관한 건 △승가대학에 관한 건 △총무원회 사무처장 중의 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 등의 건 △특위보고의 건 △재정 분과위원장 및 각종 위원 보선의 건 △기타사항 등의 안건으로 5일간 회기로 개최된 117회 임시총회는 22일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결의문 채택 △사면·복권·경감에 동의 △가야산 골프장 건립 및 발사 환경과에 대한 범불교적 대책위를 구성키로 결의하는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진각종 새 통리위원장

이번 통리위원장 선거에서 2차에 걸친 투표결과 박해대정사가 21표, 성초대정사는 13표를 얻었다. (인터뷰 7면)

7월 1일부터 3년동안의 임기에 들어가는 신임 통리위원장은 인사발령을 통해 "내년 진기 50주년을 맞는 만큼 승단의 화합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식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진각종 총무원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올바른 지도자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 가운데 과열치법 전과자도 많다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잡부장경>에 '불과 같이 만민을 위해 근심을 없애주'는 구호가 있다. 보통사람은 보이지 않고 잘난 사람만이 가득한 것같이 사글새다.

정직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으련만 학연·지연·혈연에 동정심을 부추키거나 심지어 경쟁자를 비난·경멸하고 흑색선전으로 민심을 모으려 한다.

머, 불과 같이 사방을 온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지도자의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한국사람은 출판장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도 있다. 오랜 출세지향주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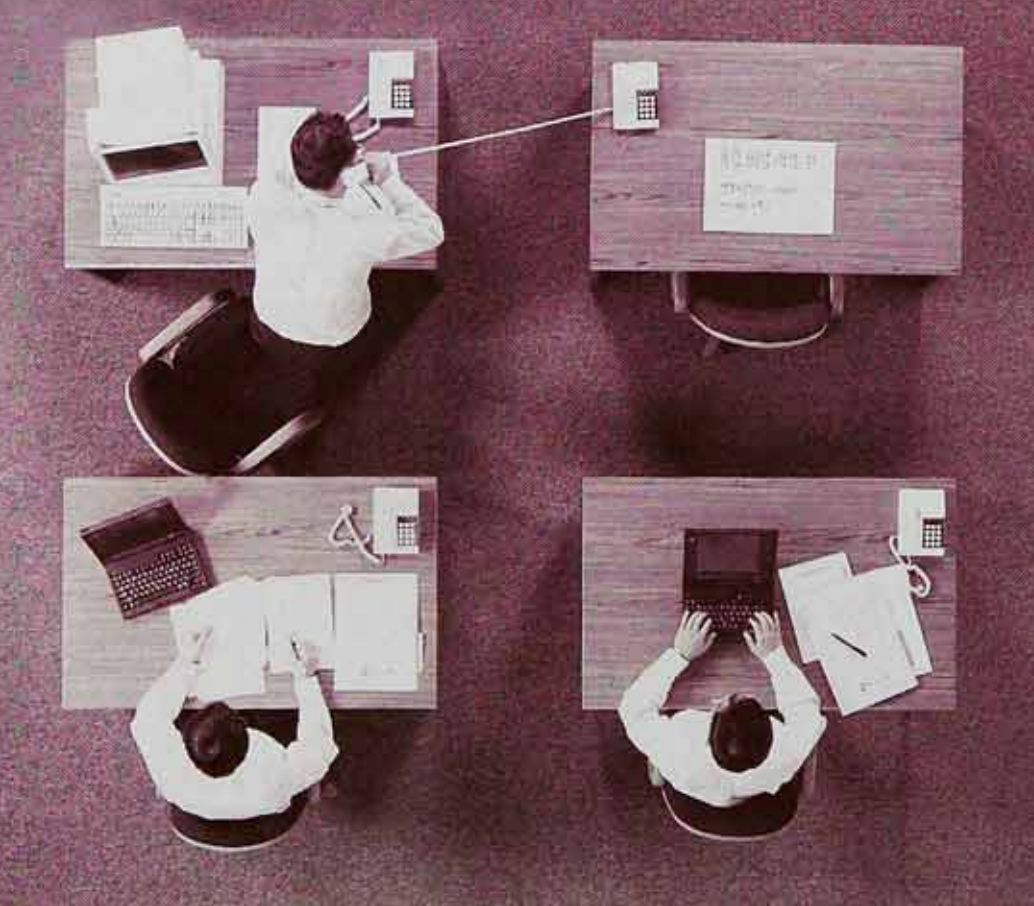
물든 탓이리라. 그러나 변화된 시대에는 '남을 어렵게 하고, 건강한 사회건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의식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王法의 부정에서 생기고, 즐거움을 받는 것은 임금의 法數가 정다움에서 온 것이다'는 <중야어함경>의 가르침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을 무색하게 하는 말씀이라 의미심장하다.

맑고 향기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오직 정직이 최선이 방백일 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나쁜 욕망이 있어 인색하고 먹고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란 <순타미파>의 가르침을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선택의 첫째로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두산이 인재의 세계화로 열고 있습니다



인재 100년, 도전 100년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100년, 도전100년

두산